

전통사찰 아니라고 개발논리에 휘청

무분별한 재개발 때문에 사라질 위기 처한 서울 전등사

근현대 신지식 해안(海眼; 1901~1974)스님이 창건한 서울 성북구 전등사(주지 동명)가 일방적인 지역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과 시공사(대림건설)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시찬)와 전등사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성북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성북3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하면 성북동 3구역 일대에 11층 임대아파트와 2·5·7층 주택 등 21개 동이 들어선다. 당초 전등사는 재개발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나 계획안이 변경되며 추가로 편입됐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기존 계획안에 50%에 달하는 추가편입은 시행사 이익과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서울 전등사는 1972년 해안 스님이 창건한 도량으로 1977년 현유치로 이전, 대표적 도심수행처로 자리했다. 해안 스님의 유지를 계승한 동명 스님이 도심선방으로 안거 시 20여 명이 용맹정진하고 있다. 1996년에는 사적 확장으로 건물이 신축됐으며 특히 300평 규모의 대웅전과 식당은 마을회관 역할도 하고 있다.

전등사는 10월 15일 법회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반대에 적극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은 “주민에게 문호를 열고 사랑방 역할을 하겠다”며 “전등사에서 지역주민모임을 열어 재개발을 막고 아름다움을 간직한 동네를 지키자”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보존 가치가 높은 성곽을 비롯해 운보 김기창과 아내 우항 박래현 화백 집터에 세워진 운우미술관, 그리고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저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동명 스님은 “은사 스님의 유지가 깎여 있고, 신도들의 수행공간인 도량을 폐사시켜야 하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며 “사찰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전할 경우 수행환경 훼손은 물론 신도들의 수행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문화적 특수성을 지닌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석한 도법 스님도 “현 정부의 무분별한, 무차별적 개발논리는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등사가 문을 활짝 열어 제치길 바란다. 개발측 인사도



성북 전등사 대웅전은 현대건축과 불교전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물로 꼽힌다.

이곳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시찬)에 따르면 재개발 반대는 242명이며 찬성은 345명이다. 찬성의 비율이 높지만 반대쪽 주민 소유 면적이 3만6363㎡로 재개발 구역(6만8000㎡)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현재 재개발 추진은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의 반대로 50%의 분양 신청을 충족하지 못해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시간문제라 보인다. 성북구청이 6월 9일 성북구청이 성북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60개월 내로 마무리 된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서울 흥천사, 강북 포교 거점된다

조계종 장기미입주사찰을 “주민위한 공간 탈바꿈”

조계종 미입주사찰로 오랫동안 방치됐던 서울 흥천사(주지 정념)가 조계종 사찰로 정상화에 들어갔다. 조계종은 10월 21일 흥천사 점유 스님들과 거주민들로부터 사찰 운영권을 정식으로 넘겨받았다.

6월 흥천사 주지로 임명된 이후 5개월 만에 사찰 운영권을 정식으로 인수한 조계종보단장 정념 스님은 이날 “앞으로 흥천사가 문화와 역사가 넘치는 곳이 됐으면 한다. 조계종의 서울 강북권 포교와 사회활동의 중심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경내지에 남아있는 22가구에 대해서는 “이주비 지급으로 이미 2가구가 이주하며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만해결 될 것으로 전망한다. 흥천사 정상화 이후 도량을 주민산책로 등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짝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념 스님은 이어 미입주사찰 문제가 타결되기를 기원했다. 스님은 “아직 종단에는 미입주사찰이 많이 남아있다. 미입주 문제는 어렵지만 뜻을 모은다면 극복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흥천사 미입주 문제의 해결을 계기로 다른 미입주 사찰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오른쪽)이 인수증을 받고 있다.

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향후 흥천사 문화재 접수조사를 비롯해 가람 정비 등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흥천사에는 현재 극락보전과 명부전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있으며 흥천사가 불상 중인 200~300년 전 탱화 6점, 불상 2점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흥천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계비(동재 왕비) 신덕왕후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1396년 창건된 전통사찰로, 승유역할 정책을 펴던 조선시대에도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해 온 사찰이다.

흥천사는 정화운동 당시 비구승측과 대처승측의 화합을 주장한 화동과 스님들이 점유한 미입주 사찰

로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마을화되며 사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초 조계종에서는 타종단 스님 4명에 대한 보상금 2억원과 22가구에 대한 이주비 66억원에 전 주지 자재 스님이 JD홀딩스와의 불법매매계약으로 받은 16억 5000여 만원을 포함해 총 84억 5000여 만원의 재원 소요로 인해 토지 매각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토지매각 없이 흥천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을 비롯한 교계의 여론이 형성되며 정념 스님이 주지로 임명돼 협의를 진행해왔다.

노덕현 기자

“신계사법회 관련 혼선 사과합니다”

류우의 통일부 장관 조계종 사과방문해

남북 불교교류의 승인과 불허를 번복했던 정부가 조계종에 공식 사과했다. 이에 조계종은 ‘공존’과 ‘상생’의 남북교류 원칙을 다시금 천명하며 신계사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겠다고 정부에 협조를 구했다.

통일부 류우의 장관(사진)은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께 13일 신계사 복원 4주년 남북합동법회 관련 방북 승인 번복에 대해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류 장관은 “신계사 법회와 관련해 실무자들이 서투른 부분이 있었다. 더러 불편했다라도 스님들께서

크게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류우의 장관은 “7대 종단 방북이 큰 성과가 있었다. 종교계 어른들이 방북해 민족 화해를 도모하고, 남북교류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을 이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장관님의 방문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사과표명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고, 류우의 장관은 “그렇게 하십시오. 정부가 여러 사정으로 (조계종에) 불편을 끼친 것을 사과한다”고 답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단은 ‘통일’이라는 표현을 ‘공존’과 ‘상생’으로 정리에 남북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정부가 이를 잘 이해해 종교적인 순수한 행위를 정



치적으로 계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예방에 배석했던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해일 스님은 “지난번 신계사 법회를 앞둔 방북 번복이 세 번째였다”며 “이번 사과와 일단 반 아이들이지만 통일부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봉은사 선·교·율 대법회 연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11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5차례에 걸쳐 ‘선·교·율 대법회’를 봉행한다.

행사 첫날인 6일에는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이 ‘계율에서 배우는 인생의 행복’을 주제로 법문한다. 둘째 주에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법화경)을, 셋째 주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이 (서장)을, 넷째 주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이 (법구경)을 주제로 법문한다. 마지막 행사인 다섯째 주에는 재가자를 초청해서 그들의 수행 이야기를 듣는다.

조동섭 기자

관음사 차기 주지 선거에 4인 출마

26일 산중총회서 선출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차기 주지선거에 현 주지 원종 스님과 도종 스님(월라사 주지)과 성효 스님(중앙총회 사무처장) 진우 스님

(법화사 주지)이 입후보했다. 제23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4명의 스님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교구 내에서는 일부 후보간 연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박규원 만평



태고종 종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저희 태고종도 대부분은 현 총무원 집행부와 운산 전 총무원장측과 그간의 불화과정과 유인물들을 접하면서 실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그저 이웃집 불구경 하듯 광망만 하며 뒷말만 많은 상태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없이 지켜보는 종도들이 각각 견해를 달리하면서 종단을 불신하여 애증심이 이완되면서 편이 갈라지는 것 같아 총무원과 종단의 중요 직책을 가지고 계신 원로 종진 큰스님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1천여 대륜문도를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우리 종단의 현재 상황을 격정하면서 협의한 의견을 개진하오니 태고 종도들은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승가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다함께 구종의 길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불교태고종은 불조의 해명을 계승한 대륜대종사를 비롯한 종단의 선조사 스님들께서 태고종조의 종지를 받들어 묵묵히 지켜온 정통종단입니다.

한국불교 분구 당시에 전국 1,000여 전통기성사찰에서 타의에 의하여 강제로 퇴거당하면서 흩날린 피눈물을 잊지 않고 불조의 해명을 계승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종단을 지키기 위하여 유점사의 경성(서울) 포교당이었던 불이성 법륜사에 총무원을 이전하고

종단 중흥을 위하여 전종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 협력하여 종단 기반을 다져 왔던 것입니다.

불이성 법륜사는 한국불교의 정통법통과 법맥을 계승해 오신 대륜노스님께서 창건하시고 주석하시면서 7,000여 법려들을 이끌고 종단을 수호하고 발전시켜오는데 기여한 근본도량으로 우리 종단의 구심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도의 구심도량인 불이성 법륜사에 태고종을 창종하신 대륜 노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120여원이라는 대작불사를 시행하여 전통문화전승관과 총무원사를 완공하였을 때 우리 태고종도는 함께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환희융락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현 인공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전인 운산총무원장과 대부분 우리 문도들이 앞뒤로 도와서 인공총무원장이 당선되어 또한 기뻐하였으며 앞으로 종단은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일소하고 전 종도가 화합하여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전 총무원장과 현 총무원장 사이에 불화가 생겨 심한 갈등을 일으키더니 현 총무원장을 탄핵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종단을 대표했던 전 총무원장을 멸빈시킨다는 보도가 있었고 심지어 종단 내부의 문제를 세속법에 호소하고 죄우당

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니 마치 함께 타고 가던 수레나, 같이 살고 있던 집을 서로가 부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단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종단발전의 초석을 다시 놓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화경의 가르침을 실천 하며 종도간 서로 탁마상성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해결 방안이 있고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전인 운산총무원장과 현 인공총무원장이 마음을 털어 놓고 대화를 한다면 무슨 문제라고 풀지 못할게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쟁점으로 징계하고 사회법으로 나가는 것이 언젠가 통해 종도들과 세간에 회자되던 우리 종단에 무엇이 이롭겠습니까?

현재 야기되고 있는 종단의 모든 문제는 다툼의 양상을 지양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서 결자해지로 풀이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고종도들은 해탈과 교화의 길(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의 공동운명체입니다. 다함께 불보살의 동체대비심과 태고종조의 원융정신과 창종주 대륜 대종사의 불이의 사상으로서 원융화합하여 현실을 타파하고 종단을 중흥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도가 불지해로서 현시점을 전환점으로 하고 새로이 대법륜을 굴릴 수 있는 바른 큰 길을 찾도록 합시다.

불기 2555년 9월 19일

대륜화상 문회 이사회